

윤석열 대통령, 한인 NASA 과학자 20여 명과 간담회... "우주동맹 있기를 기대해"

윤석열 대통령, 美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4. 25일 오후 NASA 고다드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한인 NASA 과학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사전 연설을 통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달 표면을 밟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 때부터 우주는 나의 꿈이었고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주가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설립하여 한미 우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며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을 안내한 미 해리스 부통령 또한, 우주 개발은 글로벌 안보와 변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주에서의 동맹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연설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사전공유가 없었음에도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양국 간 우주동맹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하나임을 보

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로만 우주망원경' 등 주요시설을 둘러 본 후 한인 우주과학자 20여 명과 간담회 가졌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NASA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 연구를 선두하기 위해서 KASA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대선 공약이다. 또 KASA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NASA의 유연한 조직과 연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프론티어 정신이 시대를 업그레이드 하는 도전이었다며,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문샷 정책은 학생과 과학자들의 도전, 혁신정신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NASA의 60년은 전 세계 과학의 도전과 혁신의 기간이었다며 KASA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우주경제가 활짝 열리면 여기 계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우주과



학 개발은 한 국가의 역량을 넘어 글로벌 아젠다로 KASA가 설립되면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각국과 협력하며 글로벌 어젠다를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뜻도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론 디샌티스 美 플로리다주지사 만나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 열고 양 지역 간 경제교류 확대키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주지사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갖고 양 지역 경제협력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플로리다 국제무역사절단과 만나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을 제안하고 청년사다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1/4을 차지하는 성장동력으로 항공우주와 바이오 등 최첨단 혁신산업의 중심지인 플로리다와 적극적 경제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과 태양광 발전 분야 기술 연구 협력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플로리다 소재 대학에서 경기청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과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현재 국제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영국을 순방하며 각국의 제재,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플로리다주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날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는 김 지사와 디샌티스 주지사 간 교류 협력 확대 논의와 양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찬브리핑 등이 이어졌다. 특히 조찬브리핑에서는 경기도와 플로리다주의 투자환경 소개,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교류가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에서는 플로리다주에 투자할 의향과 역력이 있는 도내 18개 기업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2000년 11월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교류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와 관계 재개를 위한 화상회의를 가진 후 그해 10월 플로리다투자공사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올해 2월에는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도-플로리다주간 웨비나 개최 등 교류를 재개했다. 경기도는 이날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 및 경제협력력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봄의 절정 5월, 경북 곳곳에 축제의 흥이 넘친다! 경북의 자연, 전통, 문화를 담아낸 축제 다채롭게 열려...

봄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답게 봄나들이하기 최적이다. 5월 경북은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되어 주말마다 경북으로 향하는 발길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5월 첫 주말에는 2023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개막된다. 올해는 "선비"라는 주제를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길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구성해 젊은 선비축제의 탈바꿈을 모색한다. 5월 19시 개막식에는 왕의 교지를 선비 분향 영주에 전달하는 교지 전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기간 내내 서천둔지,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 세상에서 선비의 가치를 투영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축제 주 무대인 서천둔지에는 '선비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컴백 신바람 퍼레이드를 연출한다. 지역 및 전국 경연대회 참가자 1

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서천생활체육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쳐 주 무대까지 대형(4m) 선비 폭두각시 인형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한다. 푸드트럭과 관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선비야시장, 지역예술인 공연과 오징어게임, 달고나, 오물조물 공방 등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선비촌에서는 마당극 댄동어미, 줄타기, 저잣거리 퍼포먼스, 현대 선비 코믹퍼포먼스 등 전통 연희가 열리고, 선비세상 일원에서는 어린이 장원급제, 발자국 런웨이 물감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도 다채롭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영양 산나물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지역 산골오지를 문화로 승화시키고 봄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월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 영양읍 일원에서는 먹거리촌, 판매장터

가 운영되는 등 축제장을 방문하면 산나물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주말에는 청정 밤하늘 별과 함께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5월 18일에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성주참외와 세종대왕자태실을 결합해 600여년 태실의 생명역사를 조명하고,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로서 이미지 부각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할 야심찬 꿈을 담아냈다. "성주, 생명을 품; 다. 참외를 품; 다!"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되는 축제는 성밖술과 세종대왕자 태실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 10시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생명신포식이 진행되고 주 무대인 성밖술에서는 1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플라잉 퍼포먼스, 참외가요제, MBC 태교음악회,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등 흥이 넘치는 가요행사가 축제기간을 채운다. 시그니처 광장에서는 생명주제관과



참외특별관이 마련되며 엄마의 품과 참외를 상징한 높이 15m 공존의 탑이 세워져 큐브모양의 입체감을 구현하는 3D 실감영상도 신비롭게 펼쳐진다. 하루 2번 성주 캐릭터 참별이와 함께하는 참별이 퍼레이드가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5월 마지막 주에는 '23~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자, 국내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개최된다. 27일 열리는 축제메인 프로그램 "국제 불꽃쇼"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총 4개국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불꽃쇼를 선보여

포스코의 야경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그린 불꽃을 쏘아 올리는 시민디자인 불꽃쇼가 포함의 밤하늘을 장식한다. 또 서커스, 마술쇼, 퍼포먼스 등 불과 빛의 길거리 공연인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공연을 가미한 포항 거리 퍼레이드도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 가능한 ESG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친환경 축제존, 친환경 산업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반영한 ESG미니 박람회,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재활용

분리배출 등 ESG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주 청보리축제-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예천활축제가 5월 4일 개막하며, 영천한약축제(19일), 영주소백산철쭉축제(27일) 등 다채로운 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5월을 채울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 한 달 동안 경북 곳곳에는 경북의 자연, 전통과 문화, 그리고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풍성한 축제가 마련돼 있다"며 "경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소중한 축제여행을 계획해 꼭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p>결혼·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p>임신·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p>돌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	---

경북도 내수 활성화 본격시동, 온라인 대축제 연다!

경북세일페스타, 동행축제 연계 대규모 온라인 기획전 개최



경북도는 전국 소비 진작 행사인 '함께 하면 대박 나는 2023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대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대축제 행사는 경북세일페스타 사업 일환으로 11개 제휴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되며 동행축제와 연계한 '경북제품 전용관(기획전)'을 개설해 5월 1일부터 한 달 간 진행한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5천여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식품, 유아동, 생활·주방, 반려동물용품 등 8천여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최대 30% 할인)을 제공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행사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엔진 네

이버, 다음, 구글 검색창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해 최상단에 노출된 "경북세일페스타" 공식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바로 접속해 배너 클릭 후 기획전 페이지에 진입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번, 다음, 구글 검색창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해 최상단에 노출된 "경북세일페스타" 공식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바로 접속해 배너 클릭 후 기획전 페이지에 진입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해 인건, 화장품, 주방·생활용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우수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영양군, '2022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영양군은 4월 25일 2022년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평가에서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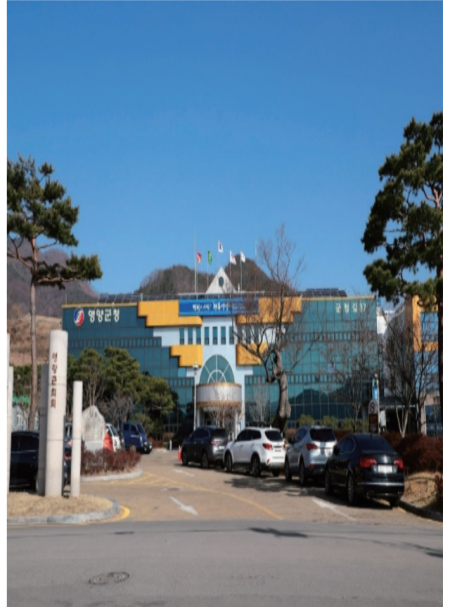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은 보건소별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1명씩, 전국 250여명이 참여해 연 50시간의 교육 동안 '자기 지역 우수 건강지표 발굴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 영향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우수사례를 도출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2022년 교육과정 시 영양군보건소는 지난 5년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지표(혈압인지를, 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의 변화를 분석해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를 개선사례'를 도출함으로써 이번엔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보건소장(장여진)은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를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영양군민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

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건강지표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현황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제61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 종합 우승

울진군은 지난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61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에서 12년 만에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하나되는 화합울진, 미래향한 경북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3개 시군, 1만 2천여 명의 선수, 임원인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시부 30개 종목,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 제61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울진군은 전 경기종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종합점수 177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로 2위인 예천군(133.6 점)과는 압도적인 점수차를 보였다. 특히 이전 대회보다 약진한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종목이 각각 군부 1위를 차지하면서 종합우승의 발판이 됐다.

대회 기간 내내 종목별 훈련장과 경기장 곳곳에서 따뜻한 미소로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한 울진군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과 봉사정신 또한 종합우승지인 울진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군 지역에서 두 번째 치러진 도민체육대회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울진군민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훌륭하게 치러져 향후 군 지역 대회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주성열 울진군체육회장은 "종합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선수단에 감사의 전한



다"며 "5월 2일에서 3일에 개최되는 제25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 선수단이 종합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둬 대령산불로 상처를 입은 군민들에

게 새로운 도전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훈련에 매진한 선수단과 뒤에서 든든한 힘이 돼준 대회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문경시, 임이자 국회의원과 소통간담회 갖고 국비확보 쟁점음

2024년도 국·도비사업 41건, 총 1,743억 원 지원 건의

문경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 초청,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과 202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3대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추진성과 보고와 내년도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경시는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및 송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등 핵심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내년도 41개 사업 1,743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비사업으로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를 비롯해 문경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구축 사업 등 1,393억 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으며,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실내테니스장 경기



장 건립과 문경새재 주출산 하늘길 조성사업,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등 349억 원에 이른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경시 영업사원 1호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2호인 제가 함께 나서 관계 부처의 협조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시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경의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이날 마지막 행사로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이어 소방기술원까지 유치하는 등 문경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3·3·3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참석자 모두와 다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장터 30% 할인...봄꽃, 봄맞이 할인이벤트 진행

29일까지 사과, 한우, 조청 등 약 77개품목 전 상품 30% 할인

봉화군은 오는 29일까지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봉화장터'의 매출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봄꽃, 봄맞이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천혜 자연의 고장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약 77개 품목을 선보이며 사과, 한우, 조청, 장류 등 봉화장터 전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회원을 대상으로 주문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1인 1일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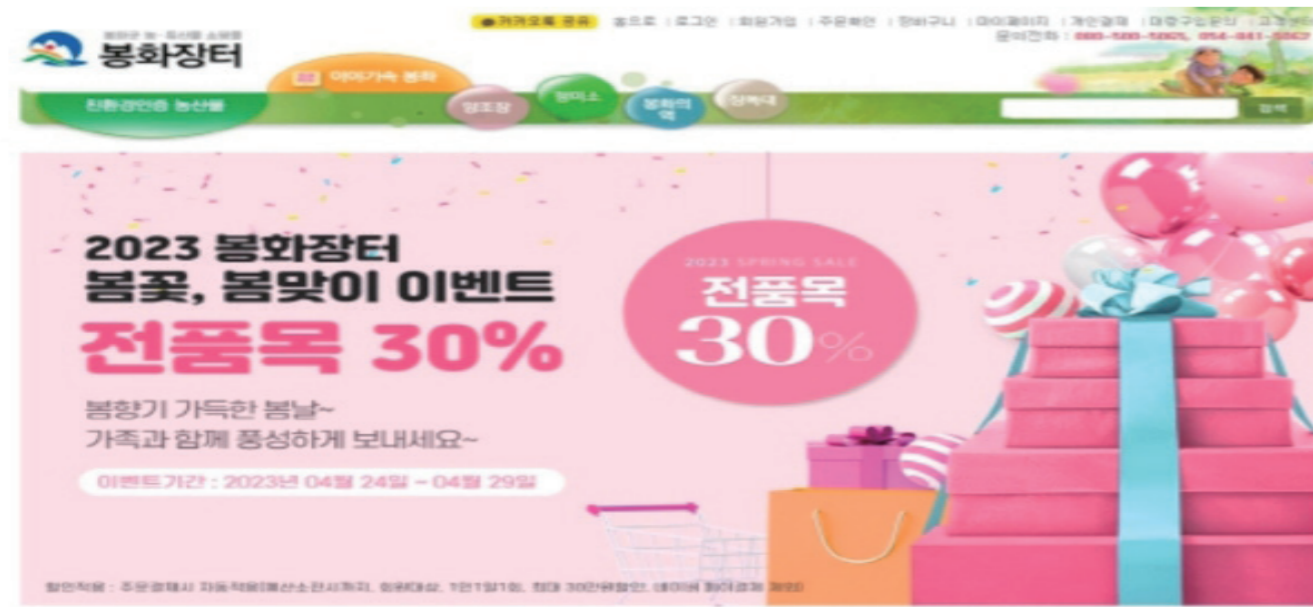
단,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는 제외된다.

이번 봉화장터에는 93개의 업체가 입점해 봉화에서 생산되는 잡곡,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처 확보 및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2007

년부터 봉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승호 유통특작과장은 "봉화장터의 농가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만들어 가겠으며 온라인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스포츠대회 열기 후끈!

- 윤경희 군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력 시너지 효과 기대해"



청송군이 최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연이어 유치·개최하며 대회 열기를 몰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3월부터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경북, 대구권역)'를 유치해 청송군민운동장 및 진보생활체육공원에서 11월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는 '2023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초등)'가 열리고,

앞으로도 제6회 청송군수기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제32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2023 청송사과 트레일런, 2023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대회, 경북 협회장배 생활체육 및 경북학생체육 탁구대회 등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여러 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 가족, 대회 관계자 및 임원 등 많은 1,000여명이 청송을 방문해

속식을 해결하며 지역 관광지도 방문하고 있어, 청송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가 하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대회가 관광 및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암군 “모두가 하나된 시종의 날” 제18회 시종면민의 날 및 경로잔치‘성료’

효행상 마일만, 면민의 상 김영학 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수상



시종면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는 제18회 시종면민의 날 및 경로잔치 행사를 지난 21일 시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면민과 출향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행사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군의원, 재계향우회원·재광향우회원과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및 면민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며 우의를 다졌다.

풍물패를 선두로 고려 현종왕 가정행렬이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하여 로터리를 지나 행사장인 시종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체육행사, 면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하나로 어울리며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에서는 와우2리에 거주하는 마일만 씨가 20년 이상 홀어머님을

극진히 봉양하여 효행상을 수상했으며, 김영학 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시종면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종면민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 후에는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3개 종목의 체육경기가 14개 리의 대표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식후행사로 열린 면민 노래자랑 또한 주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흥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졌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한자 붓글씨 전시회와 마한의 고장을 상징하는 용관 전시회 또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을 연출했다.

방정재 시종면장은 “애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감동적인 행사였다.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여 살기 좋은 시종을 만들자”는 소감을 전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 국제행사 대비 도내 음식점소 '청결·친절 서비스' 붐업 조성 홍보·캠페인' 본격시동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300여명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전북도는 국제행사에 대비해 도내 외식업소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청결한 위생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붐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등에 국내·외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음식점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붐업 홍보·캠페인 계획을 수립해 14개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태정) 정기총회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손님맞이 붐업 피켓 퍼포먼스 등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를 위한 다짐 결의대회까지 준비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방문객에게 안전한 식사 제공과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후 도내 14개 시·군 지역 업주들과도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계획중이며, 도와 시·군은 각 식당 입구에 부착할 손님맞이 포스터(10,000부) 제작·배부 및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 음식점소 등에 ‘음식 안전조리 요령’과 ‘식중독 예방6대 수칙’ 리플릿(3,000부) 배부 등의 홍보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최경식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광석마을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운영

남원시는 25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교동 광석마을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평소 120만원봉사대가 운영하는 ▲이동빨래방 ▲농기계수리 ▲전기 가스·수도·보일러 수리뿐만 아니라 ▲자정면봉사단 ▲자원봉사센터 ▲남원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남원지사 ▲보건소 ▲주민복지과 ▲민원마켓(세무, 건강보험상담, 복지상담) ▲건강마켓(혈당, 혈압체크, 콜레스테롤, 치매, 정신건강상담, 손마사지봉사, 심폐소생술체험, 소화기사용요령 등), 추억마켓(옛날 계란빵, 옥수수팝콘) ▲자정면 나눔봉사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건립의 성공과 광석마을 주민들의 건강 기원을 담은 풍선날리기 퍼포먼스를 추진해 오래된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았다.

특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간담회 시간과 함께, 민선8기 시책사업인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에 최 시장이 혼자 사는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 행정에 함께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



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광주시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홍보 이벤트 ‘인문라이프 챌린지’

광주 동구는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 SNS 홍보 이벤트 ‘인문라이프 챌린지’를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인문라이프 챌린지’는 책·사진 속 인상 깊었던 문장, 영화 명대사 등 개인의 인문 활동을 SNS 채널을 통해 공유·추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SNS 게시물에 ‘#무등산인문축제’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공유하면 무등산 상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증정된다.

동구는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문장 등은 축제 기간 중 전시 콘텐츠로 활용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는 오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다양한 인문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물제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문도서관 ‘1187 라이브러리’ ▲의재로 권역 미술관 연계 ‘무등산’ 테마 전시·체험행사 ▲숲명·책명 ‘편백숲 인문 캠프닉’ ▲춘설차와 함께하는 명상 ‘춘설 사유정원’ 등 인문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시민의 마음의 안식처인 ‘무등산’은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광주·정신의 원형이 되는 공간”이라며 “무등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기획된 ‘인문 For:rest’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강진군, 화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시장 다변화

‘남도보물’과 ‘네이버’로 꽃작약 수국 판매



강진군은 코로나19에 따른 화훼산업 어려움을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극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직거래 판매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장미, 수국, 꽃작약 등 118 농가, 57ha에서 화훼류를 생산하며 전남 대표 화훼도시이다.

현재 강진군 34농가가 15.3ha의 장미를 재배해 전라남도 재배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국은 전남의 84%, 꽃작약은 95%를 생산해 각각 1위를 차지한다.

‘꽃작약’은 향기가 진하고 달콤하며, ‘배어난 모양으로 함박꽃이라 불릴 정도로 탐스러워 결혼식 부케 등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수국’은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 색상이 다양하고, 크기가 매우 크고 화려해서 보는 꽃 중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자골 장미’는 장미의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 받으며, 강진산 수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꽃색이 선명하고 화려해 최고의 품질로 사랑받는다.

군은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설온실 및 환경제어 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 종묘, 병해충 방제사업, 화훼 저온 저장시설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장비 등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강진 꽃작약과 수국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보물, 네이버 쇼핑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추윤호/기자

완도해경, 설명海 소통海 지역 언론 정책설명회 개최

지역 언론과의 유대강화 및 정책 홍보 협조 네트워크 기반 마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과 유대관계를 다지고 주요 추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언론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3층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서장, 각 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언론 기자 총 8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주요 정책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지역 언론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는 박 서장의 의지로 추진됐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주요 정책 설명 ▲정책 개선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토론 시간을 통해 지역 여론을 듣고 즉문즉답하는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



서는 원활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테마 시기별 추진정책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도와 상호 공감도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자님들과 정책 홍보 협조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양경찰의 정책과 활약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지역 초등학생 대상 2023년 장애이해공모전 개최!

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긍정적 및 올바른 인식유도를 위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이해공모전을 진행했다.

금년도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시, 슬로건 3분야를 고학년, 저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장애, 장애인, 장애이해 등을 주제로(슬로건 부문은 고학년만 공모)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화요일까지 약 2주간 공모했으며, 공모결과 구례북초등학교, 구례중앙초등학교, 청천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간문초등학교 5개 학교에서 총 130작품이 접수됐다.

심사에는 구례문화원 원장, 한국미술협회,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과장,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 총 4명이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상에는 구례군청, 전라남도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제7391부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국립공립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구례지부, 총 8개 유관기관에서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상으로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 15개로 총 24개의 상장 수여와 수상작 작품전시회를 함께 진행했다.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복지관 별관 1층 다목적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상 학생·교사·부모 등 약 40명이 시상식에 참여했다. 수상자 김모학생은 “이

번 공모전을 위해 작품을 준비하면서 장애에 대해 평소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보호자는 “아이가 공모전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전이 지속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 송태영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를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며 다양한 장애이해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남도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육성 핵심시설 우뚝

세미나 컨설팅 등 매년 52명 양성...성적 우수자는 입주 우선권

전남도는 청년 창업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첨단시설을 갖춘 '고품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농 육성 핵심시설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선 '스마트팜 환경관리 최신 동향과 특화 과제'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컬티렌(Cultilene) BV사와 국내 스마트팜 전문가를 초청해 뿌리부분(근권부) 양수분 균형제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청년창업 교육은 실을 방문해 재배 중인 작물의 뿌리부분을 직접 관찰하며 보육생에게 컨설팅했다.

고품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미래 첨단 스마트팜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2명을 선발하는 교육에 참여를 바라는 청년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되면 20개월 동안 이론과 실

습 과정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팜 전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 기간 교육비와 숙박비 등으로 1인 기준 약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료 후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성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도 주어진다.

지난해 수료한 1기생 중 11명은 1인 기준 1천600㎡ 면적을 연간 45만 8천 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3년간 입주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240여 톤을 생산·판매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고품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그동안 청년 농업인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농자재 생산업체, 귀농인 등 총 93차례에 걸쳐 1천6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고품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31년까



지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청년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문화, 복지, 주거, 창업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4월 말부터 4기 교육생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6~7월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 7월 말 합격자 5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명/기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영광군 식품 낭비 해소와 환경 보호에 한 걸음 더

영광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부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축산판매제조가공업체 453개소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홍보를 지속 실시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이 시행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폐기됐던 식품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포장지 폐기 등 산업계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적극 도입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동순/기자



함평군-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비대축제 이벤트 운영

관람객 대상...추첨 통해 110명에게 경품 증정

전남 함평군이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제25회 나비대축제 퀴즈 및 방문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비대축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참여 가능하다. 방문후기 이벤트는 축제 방문 후기를 작성해 개인 SNS에 올린 후 게시물 캡처 자료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단, 당첨 발표일인 5월 19일까지 게시글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퀴즈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0명)이, 방문후기 이벤트 당



첨자에게는 배달의 민족 10만 원권(10명)의 경품이 지급된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영진/기자

“집단지성 지혜 모은다”...광주광역시, 2기 민관협치협 출범

상호 신뢰·이해·존중, 과정 중시 등 협치원칙 선언문에 담아

광주광역시는 25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공동의장 선출, 민관협치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공동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시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실·국장, 시의회, 시민단체 및 직능연합단체, 일반시민, 9개 분과장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4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 간이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대표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시민대표 공동의장은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도시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반목과 갈등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자"며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협치 기본원칙으로 ▲민간과 행정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치 ▲자율·책임·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협치 ▲추진 결과 못지않게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는 협치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 추진 경위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제정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1기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발굴 및 논의를 통해 협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9개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도시·교통분과를 신설하고 민주인권·이주민, 문화예술, 환경, 사회적경제·노동, 청소년, 여성, 청년, 자치·마을공동체로 재개편했다. 분과별 위원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등을 합의하고 정책을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5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타지역 사례 분석 및 분과위 활동,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영일 선임 공동의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민관협치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지금까지 광주의



제를 발굴하고, 여론 선도와 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기 협의회가 쌓은 초석을 굳게 다지고 강화해 한국의 정형적인 협치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다양하게 발굴·제안하고 숙성된 논의의 장을 펼쳐달라"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관이 만나는 장구인 만큼 다양한 생각이 펼쳐지고, 이견과 이견이 만나 대화하고, 결과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 광주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올해 연말까지 시설 기능개선 추진

업그레이드 통해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다이내믹한 분수공연 기대



목포시가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평화광장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는 세계 최초의 부유식 분수로 지난 2010년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과 감동을 선사해왔다.

목포시는 바다분수 설치 이후 13년 만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시설 기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시설개선은 오는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부품 수급 곤란 등 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에 설치된 분수의 특성상 염분에 의한 부식이 많이 진행될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전반적인 보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목포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광 기반시설 정비,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사업,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장기 계획에 따라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

난해 11월 말부터 기존 바다분수 시설 전반에 대한 외관조사와 내구성조사 등 전반적인 상태 평가를 시행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입찰공고를 걸쳐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다이내믹한 연출을 위한 분수설비 교체 및 보강, 다양한 조명, 노후 기계·전기 설비 교체, 부력체(선체) 내구성 강화, 화질 개선을 위한 장비(레이저, 빔프로젝터)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대적으로 분수 시설에 대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으로 공연 체험성 극대화 및 스토리 최적화를 통해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목포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 사업으로 분수 공연을 진행할 수 없어 목포 해상W쇼 공연과 삼학도 크루즈 유람선을 병행해 볼꽃쇼를 진행하는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장흥군민의 날 28일 개최 “전통 장흥고싸움 선보인다”

4년 만에 실외행사, 장흥고싸움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마련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가 오는 4월 28일 장흥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4년 만에 실외행사로 진행되는 올해 군민의 날·보림문화제에서는 장흥고싸움 줄다리기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27일 '향우 어울림의 밤'과 군민의 날 축하콘서트인 헬로콘서트 '좋은 날'이 예정돼 있다.

향우 어울림의 밤은 오후 5시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다.

담진강변 무대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관광·문화·예술 르네상스 원년 선포식과 함께 김희재, 정미애, 설하운, 류지광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헬로콘서트가 진행된다.

28일 군민의 날·보림문화제 행사는 읍면 지역과 기관·사회단체의 가장행렬로 시작된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장흥고싸움 줄다리기 시연이 이뤄진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싸움 줄다리기는 인력 확보 어려움

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시연이 확정됐다.

장흥고싸움 줄다리기는 남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고줄로 하는 우리나라 줄다리기의 원형 또한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싸움에 이어 10개 읍면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체육 경연 행사가 이루어진다.

장흥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는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그림, 사진, 서예, 목공예 등 문화예술단체들의 전시가 펼쳐진다.

편백공방 체험, 떡메치기,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향우가 하나 되는 군민의 날·보림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장흥의 모습을 선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전세사기 예방

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 등 지도·단속

천안시 서북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북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서북구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발생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과 보증보험 안내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행위 집중 단속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용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 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나서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7대 증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행인과 차량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를 내며 녹화촬영을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스마트 단속 장비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하여 충전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설치 장

소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서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건 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

중관리 지역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24대를 상시 운영하고 이동식 카메라 56대를 순환 배치하여, '깨끗한 일산동구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기자

경주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실시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 단속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북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제장 미준수 △얕트대개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강도 높은 단속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입 취소·정지 등 강



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

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부산시, 구·군 합동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부적정한 보관·처리로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 사전 방지 및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부산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시내 의료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조직 적출물,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사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며,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개체 수*와 동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절한 보관과 처리로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도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의

료폐기물배출업소로 등록된 시내 동물병원 중 277곳 중 대형동물병원(수의사 2인 이상 26곳, 수의사 1인 4곳) 등 30곳을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되는 고의, 조직적 처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근절 차원에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분위기를 유도하고 확산해 시민건강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무주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봄철 맞아 불법행위 많은 것으로 우려

무주군은 4월부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산나물을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과 산물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140명에 이르는 단속반이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무주군 산림보호팀 김상용 팀장

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본인 소유의 토지 이외의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우기자

대전시, 수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선도지자체 공모사업 최종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확보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수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 산업 지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수소체계 고도화 및 수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은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수소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대전시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됐다.

특히, 수소정보 관련 서비스모델 발굴사업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하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역 일원에 재난(화재, 테러,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 수소기반을 통한 실내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전국 확산 시범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규모 이용 공간에서의 실내 이용자들을 건물 내부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 편리한 길 찾기가 가능해지며, 특히나, 긴급구조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대전시가 수소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창출을 위한 기반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소기반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금천구,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전문기업과 연계해 제품 디자인 개발 전 과정 지원

금천구는 중소기업이 제품 가치를 향상하고, 자체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3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2023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16곳을 대상으로 공기 질 측정기, 모바일 엑스레이 시스템, IoT 캡슐커피 자판기 등의 디자인 개발과 함께 홍보 지원, 양산 컨설팅 등 후속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

지이며, 디자인 개발 지원뿐 아니라 디자인 컨설팅, 제품 홍보마케팅 및 유통 등 디자인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여 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와 함께 한국디자인진흥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모집에서는 디자인 개발 지원 희망 기업뿐만 아니라 개발과제를 수행할 디자인 전문기업 및 컨설턴트를 함께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대기업 납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이번 사업으로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을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환신/기자



사천상공회의소,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간담회' 개최

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사천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사천시, 경남도, KAI, 항공부품제조기업 대표, 유관기관, 금융계 등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송호철 KAI 운영센터장, 김태형 KAI 제조분과협의회장 및 항공부품 제조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기관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서희영 회장은 "항공부품제조기업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받은 타격에 더해 고금리와 고물가, 인력난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되고 사천시가 우주항공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우주항공 생태계가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KAI와 협력사, 금융계, 유관기관, 경남도와 사천시가 원팀이 되어 지금의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공부품제조기업 대표들은 근로조

육세 감면, 교통비 지원 및 셔틀버스 운행, 저가형 기숙사 건립 등 근로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주도 장기임대 형태의 공장부지 확보, ▲운영자금 대출 및 3% 이하 금리지원, ▲투자 목적의 부채상환 최소 5년 이상 장기상환, ▲5축가공, 3차원 측정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개설도 요청했다.

박동식 시장은 "항공부품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유관기관, 금융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며 "5월 중에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유준/기자



충북경제자청 개청 10주년, 2030 미래비전 발표

기념행사 및 전문가 포럼으로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오송 C&V센터에서 개청 10주년 기념행사와 '사람중심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전 1부 행사는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의 기별사,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 등 주요인사의 축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청장의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 보고 등 개청 10주년 기념식 행사로 진행됐다.

2부 포럼에서는 맹경제청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충북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기초강연에서는 비전에 대해 '청주공항 경제권 및 사람중심 오송의 미래비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산업육성 방향과 오송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BIT 융복합 첨단산업 도시 구축과 관련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2030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중, 국제도시 오송의 특성과 경쟁력있는 도시 육성방안으로 6대 보건의료 국제기관 및 130여개 바

이오기업이 있는 '건강의 도시'임을 설명하고, 또한 매년 개최하는 화장품산업엑스포, 2027년 개최하는 K-뷰티아카데미 스쿨 건립으로 '아름다운 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기업이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스타트업의 허브 도시', 2025년 청주전시관 론칭으로 인한 각종 회의와, 전시 관람이 가능한 '마이스 산업의 전진도시', KTX 분기역과 철도관련 기반시설이 모여있고 국가철도클러스터 후보지인 '철도 중심 도시', 일반 초중고는 물론 의학 제약과 관련된 충북대, 청주대 등의 캠퍼스와 2027년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된 '인재양성 요람의 도시'로서 육성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오송의 글로벌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단기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4만여 인구유입에 대응한 정주여건 개선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장기과제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 발전을 선도하는 공항으로 외국 의 비즈니스 공간과 국내 중부권 허



브공간으로서의 경제구역 역할 증대와 2025년 교통과 산업을 기반으로 '인구 10만 사람중심 융복합 문화복지도시', 2030년 BT.IT 중심으로 '첨단·융복합의 인구 30만 자족 도시' 조성 과제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 공간전략, 산업클러스터, 교통, 균형발전분야 전문가와 기업 및 주민 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여 오송의 비전과 발전 전

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의 성장동력이 되어 오송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정화/기자

안동시, 일본 가마쿠라시와 파트너시티 10주년 기념 맞손 '상생 교류의 새로운 10년 기약'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 기념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 간담회 열어

안동시 대표단이 4월 25일 일본 가나자와현 가마쿠라시를 방문해 안동시와 가마쿠라시의 파트너시티 1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안동시 대표단은 가마쿠라시청에서 마츠오 타카시 시장을 비롯한 국제교류담당자 등과 함께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을 축하하며, 향후 양 도시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가마쿠라시는 1192년 일본 최초 무사(武士)정권으로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가 시작한 곳으로 독특한 가마쿠라 불교문화로 연간 약 2,000만 관



객이 찾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이다. 특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본고장으로서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안동시와 가마쿠라시가 교류를 맺게 된 연원은 2005년 "간고등어길 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규모,

탈출 등 유사한 경제·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현재까지 양 도시의 민간단체인 우호교류협회가 앞장서서 청소년사진전, 축제공연단 상호방문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실시해왔다.

또한, 2013년 7월 23일 파트너시티 협정 체결 이후 "세계유교문화서예대전", "안동시 해외 자매·우호도시사진

전", "안동시 해외자매·우호도시 랜선투어" 등에 참가했고, 2022년 안동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당시 마츠오 타카시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교류의 끈을 이어왔다.

마츠오 타카시 가마쿠라시장은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 도시가 문화와 민간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파트너시티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행정·문화·관광·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상생 교류의 10년을 열어가길 바란다"라며 "특히, 올해 10월 안동에서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21세기인문 가치포럼'에 정식으로 초청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신공항특별법 통과 후 속도감있는 사업추진 지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첫 신공항건설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5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청 산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 실·국이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13일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국별 추진계획이 논의된 첫 보고회였다.

신공항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공항후적지 개발, 신공항도시 건설 등 공항건설사업과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신설,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전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공항 건설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이 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동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하고 중앙고



속도로(동명동호JCT~군위JCT)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항후적지 개발은 첨단산업·글로벌 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은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등 5대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는 향후 예타면제,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의 공조 체계 구축, 타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만들어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되며, 개항과 동

시에 여객, 물류 처리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면서, "타성에 젖은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치는데 전 공무원이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5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권역별 협의회 개최

지역과 소통, 협업, 협력적 문제해결 통한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31개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권역별 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6권역으로 나눠 25일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협의회는 시·군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해 ▲31개 시·군 지구별 운영계획 공유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 ▲지역 체력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산교육청, 학교 현업종사자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11월까지 9교 대상으로 '방문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학교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 관리프로그램 '하준이 간다'를 '방문 건강 지킴이'로 명칭을 바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현업종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온종일병원 소속 산업보건 의사와 시교협력 보건관리사, 주무관 등 3명이 팀을 이뤄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직업병 예방 상담,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 위험 요소 파악, 만성질환과 기타 질환 예방 상담 등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4월 26일 해강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9교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신용채 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경북교육청, 교육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드라이브트 공법 마감 시설 14동 점검

경상북도교육청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준공연도가 오래되고 드라이브트 공법으로 시공된 교육시설 14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건축, 구조, 전기, 가스, 소방 및 승강기 각 분야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내용을 확인해 보수·보강 시행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참여토록 해 민간합동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는 특수학교 8교 집중점검(58개소), 2022년에는 고등학교 기숙사(6개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드라이브트 공법으로 마감 시공된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교육비 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업무담당자 350여 명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권, 컴퓨터 및인터넷 통신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제도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2023학년도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제도의 운영 방향, 업무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NEIS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집중 전달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신청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된다. 교육 급여의 경우 학교의 보장 결정 처리가 완료되면 수시로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소규모학교 많은 지역여건 감안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학생수 기준 하향을 통해 관리 학교를 최소화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이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작은학교 교육력 높이기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도서 및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이른다. 소규모학교는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에 대한 소극적인 재정 투자로 교육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동창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상존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정규모학교(통·폐합) 육성을 위한 학생수 권장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으로 추진하며, 학교 통·폐합은 전

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분교장 포함), 1도서 1교(분교장 포함),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지역 별로 학생 수 10명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내 22개 교육지원청 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함께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 가족 체류형 농산어촌유학 운영, 작은학교·섬지역학교·원도심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으로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서울시교육청,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든든한 동행

서울특별시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총장 정태영)와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과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

리협약의 이념에 공감하며,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학생(아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협력 △학생(아동)인권 이해 및 체험교육 등에 대한 연수 지원 △그 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아동)인권존중 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이다.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를 통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학생 참여단 활동 등 협력사업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통한 공존의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Goyang GOYANG SPECIAL CITY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거창군, 로컬푸드 행사 '행복한 거창이야기' 첫 시작

거창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거창 IC 맞은편 거창 APC 일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로컬푸드 행사 '행복한 거창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거창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있는 로컬푸드 장터와 지역 농촌과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고속도로 나들목 카페(G-애플)와 로컬푸드매장(푸드종합센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관내 유치원생들과 함께 거창군에서 자란 모종을 직접 심는 체험을 통해 로컬푸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농부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NS홈쇼핑 라이브커머스에서 사과 원물을 판매해 거창 사과를 홍보한다.

29일에는 G-애플 주최로 유치원생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거창한 사과나무 그리기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도 운영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은 신활력플러스센터 주관으로 거창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문화 콘서트를 진행한다. 식문화 콘서트는 봄철에 먹을 수 있는 '썩'을 주제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썩국과 썩덜탕이를 만드는 시연 행사를 통해 어릴 적 어머니의 음식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달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병철/기자

이다. 또한, 행사 기간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많은 업체가 참가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시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메인무대와 G-애플 매장 내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선보인다.

방문객에게는 푸드종합센터 및 G-애플 가입 쿠폰과 할인쿠폰 등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제공하고, 푸드종합센터와 남상 어울림 마을 먹거리 부스에서 준비한 볼내음 가득한 곰취와 거창 애우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KNN 현장 특별방송과 연계해 광주대구고속도로 나들목 야경, 거창창포원, 수승대 출렁다리 등 거창의 명소와 G-애플, 푸드종합센터의 먹거리를 소개해 거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창군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지역농가와 도시민 간 소통과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한 거창이야기가 봄철 거창군의 농업·농촌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5월부터 매일 1회 '행복한 거창이야기'를 주제로 정기적인 장터를 개최해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거창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현태/기자

부안누에타운, 제18회 전문기획전 '네그로스 스토리.(첫번째 이야기)' 개최

필리핀 네그로스 원시 정글로 누에나방 탐사를 가다. 오는 5월 부안 마실 축제를 맞이하여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는 제18회 손민우박사의 세계 곤충탐사기획시리즈 『네그로스 스토리.』 첫번째 이야기 전문 기획전을 개최한다.

네그로스(Negros)는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제도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12,706km²이며, 필리핀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 1,849km²와 비교해 약 6배 크며, 설악을 만드는 사랑수수 생산지로 유명하다.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활동이 강한 칸라온 활화산(Kanlaon)이 있는 네그로스는 원시의 정글 또한 잘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아름다운 누에나방이 서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013년 5월 손민우박사의 탐험대는 부안누에타운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네그로스 옥시덴탈의 실라이산으로 누에나방 탐사를 떠난 첫 번째 이야기를 기획 전시한다. 20cm의 긴 꼬리를 자랑하는 누에나방과 얼굴을 가릴만한 초대형누에나방, 낮에도 활동하는 특이한 산누에나방 등, 세계적 누에나방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0종 100여 마리의 희귀곤충이 현장 사진과 함께 전시된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5월의 마실 축제를 맞이하여 부안군이 주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한 제18회 오지 탐사 전문기획전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5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시하며, 부안누에타운은 부안행 오디의 고장 유마올(변산면 참봉로 434-20)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태/기자



손민우박사의 세계 곤충 탐사 기획시리즈 Vol. 18. 네그로스 스토리 2013

4년만에 대면행사 '2023 문경차사발축제' 4월 29일 개막



문경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3 문경차사발축제'를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까지 9일간 문경새재 오피세트장 일원에서 '차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이란 주제로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문경새재 오피세트장에서 개최되며 장민호, 김희재, 박서진, 김의영, 최석준, 주미 등 최정상급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박구윤, 박주희, 안성준, 박규리 등으로 채워지는 폐막식 및 트롯인문경 공연까지 차사발이 지닌 생활자기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담아 새롭게, 재밌게, 맛있는 축제로 관람객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문경 차사발이 생활자기로 전환점을 맞게 될 이번 축제에서는 축제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생활자기로 훌륭하게 쓰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문경새재 축제장 입장료와 주차요금도 모두 무료이다.

4년 만에 전면 현장 축제로 개최하는 '2023 문경차사발축제'의 이모저모를 미리 돌아본다.

▲문경새재 오피세트장에 차려지는

볼거리, 체험거리 등 50여가지 프로그램 운영

려 전시된다. 이번 기획전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우수한 전통도자기 작품들을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즐기며 문경도자기의 멋과 정취를 가득 담아갈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별행사, 체험행사, 알찬행사, 부대행사로 채워지는 축제장

2023 문경차사발축제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

먼저, '특별행사'로 문경 도자기 명장들이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자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는 소통형 참여프로그램 '사기장의 하루'행사가 축제기간 중 1일 2회(10시, 14시) 오피세트장 광화문 무대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문경차사발축제의 백미인 '문경도자기 명품경매 및 생활자기경매'가 행사 기간 중 각 2회(생활자기경매: 4월 30일, 5월 6일, 문경도자기 명품경매: 5월 5일, 7일) 오피세트장 저자거리 주무대에서 당일 1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아름다운 차사리, 전국가루차 투다대회, 문경전국 발물레경진대회,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문경차사발이야기, 차사발 워크숍, 차사발의 산 시간제프 이벤트, 차사발 활인! 체험스튜디오 이벤트, 100만원대 단판을 10만원에 한정 판매하고 50만원대 다시세트도 10만원에 판매하는 요양별 단판 및 생활자기 한정판매 이벤트,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한 '웅이마을의 신기한 마을 이야기' 등이 특별행사로 준비되어 있다.

문경차사발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체험행사'로는 '차사발 빗기'와 '차사발 그림그리기',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사전예약 1만 5천원에 누릴 수 있는 '차사발 원픽 패스권', 풀장속 공공 숨어 있는 황금 차사발을 찾는 '1300 황금차사발을 찾아라' 등을 구성했고, 그 외에 찻퀴즈온더블록, 차사발 페달보트, 차담이 네컷, 망각의 찻집, 스탠딩 차사리, 다례체험 등 가족·연인들이 함께 즐기기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1천만원 상당의 황금단판 경품 이벤트, 축제의 주인공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 진행, 문경차사발의 이색적인 재미를 표현하는 광화문 글로벌스타 월담스토리, 문경특산물 판매, 문경문화 예술인 자유공연, 차담이 페이퍼 포토존 등의 '알찬 행사'와 안동MBC 정오의 희망곡 오피세트스튜디오, 찾아가는 영화관, 문경도자기와 향토음식 한상차림전, 한복 패션쇼, 제1회 문경 전국사진 촬영대회, 신스타일 페스티벌, 문경사랑 연예인초청 골프대회, 문경도자시포지엄, 문경친환경 캠프프로그램, NH농협과 함께하는 건빵바사·이온결 스페셜 마술쇼 등의 '부대행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축제로 개최되는 제25회 문경차사발축제 준비에 관계자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관람객의 안전과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문경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역경을 버텨내고 있음을 회복 중인 우리 모두 봄기운이 가득한 문경새재에서 문경차사발 축제의 진수를 만끽하고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국 현대미술의 두 거장 작품, 강릉에서 본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로즈 와일리 전시, KTX 및 호텔 프로모션 진행'

강릉아트센터는 다가오는 5월, 시민의 일상을 예술로 만들어 주기 위한 2023년 첫 기획전으로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과 로즈 와일리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영국 현대미술의 두 거장의 만남이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과 로즈와일리의 원화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국내에서의 마지막 기회이며, 5월 3일(수)부터 6월 11일(일)까지 강릉아트센터 제 1, 2, 3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일상의 인용, 프롤로그&에필로그, 은유적 사물들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두 작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소개하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다.

현대미술의 악동으로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 등 '영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대거 양성한 스승이자 '영국 개념미술'의 1세대 작가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세계 3대 갤러리 중 하나인 사고시안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즈 와일리는 76세 최고령 신진작가에서 86세에 영국을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슈퍼스타로 등극한 '늦깎이 할머니 작가'로, 현재 데이비드 즈워너의 전속작가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미술계의 거장이다.

이동원/기자

전시 기간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두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투어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이고 20명 이상의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사전예약 관람권은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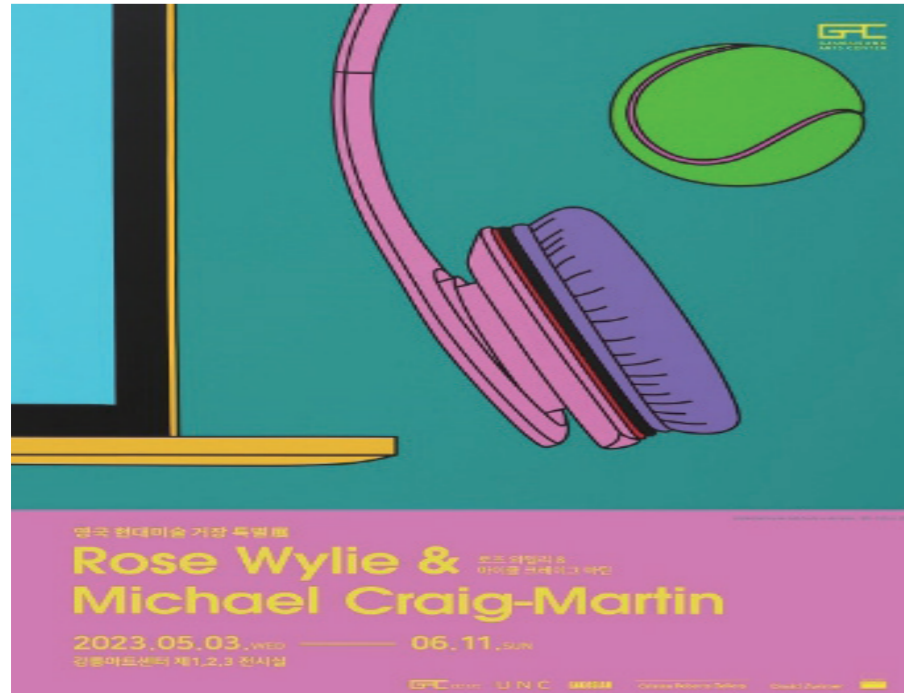
한편, 지난 강릉산불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전시관람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TX의 코레일 예매시스템 코레일톡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이번 전시와 열차표를 할인된 금액(열차표 최대10%, 관람료 50%)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6월 11일까지 판매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호텔 5곳에 투숙한 관람객에게도 전시 관람료 5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모션 참여 호텔 및 자세한 사항은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규만 관장은 "지역 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서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평구, 2023년 어린이 대축제 푸른꿈 아이 세상 '부평에서 놀래!' 진행

부평구가 오는 5월 5일 부평공원 소나무 광장 일대에서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2023년 어린이 대축제, 푸른꿈 아이 세상 '부평에서 놀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며,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기념식과 각종 공연 및 체험 부스, 놀이시설, 아동권리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식전 축하공연으로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및 어린이 치어리더 공연 등의 무대가 펼쳐지고, 기념식으로 아동권리 공모전 시상 및 축하와 어린이헌장 낭독식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B-boy 공연, 보글보글 매직&버블쇼, 동화책 읽어주는 마술쇼 등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미니카, 인생네컷 등의 놀이시설 및 로봇축구, 드론체험, 에어로켓, VR체험 등 26종의 아동 놀거리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행사 당일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니, 방문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어린이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가 온전히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